

주 제	화장품 유해성분 조사와 방안													
분 야	소 논 문	출 품 자	31217 백 경 희											
I 탐구 동기 및 목적 1. 화장품 사용 실태 ▶성인여성의 경우 총 20개가 넘는 화장품 사용. ▶청소년 화장품이 높아짐 (이유) 저렴한 화장품 출시, 로드숍, 온라인 쇼핑 등 자유로운 구매. (단점) 여드름 악화, 피부 늘어짐 등 피부트러블 발생. (부작용)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을 경우 수성사인펜, 쌍꺼풀 만들기 풀 등을 사용해 부작용을 경험. (경고) 선천적으로 피부가 좋더라도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할 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니 너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을 권장. II 탐구 과정 1. 과거 화장품 성분 ▶고대: 납, 수은이 주성분인 회반죽을 발랐으며 얼굴이 타들어 가는 따가움을 견뎌야 했음. ▶15세기 중반: 소금과 수은, 황산의 성분인 파운데이션 사용. 피부와 접촉하면서 피부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쓰라린 고통을 경험. 얼굴이 점점 흉측해져 여러 가지 해를 입게 됨. ▶20세기 중반: 산업사회로 전세계 화장품 사용 '박가분'등장(최초의 한국 화장품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으나, 납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납중독의 부작용이 늘어남.) 2. 현재 화장품 유해성분 <table><tr><th>성분명</th><th>특징</th></tr><tr><td>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디아졸리디닐우레아</td><td>방부제, 아토피성 피부염의 주 원인</td></tr><tr><td>메칠/프로필/부틸/에칠 파라벤</td><td>방부제, 알레르기반응과 피부발진의 원인</td></tr><tr><td>페녹시에탄올</td><td>살균보존제로 사용, 피부에 강한 자극</td></tr><tr><td>프로필렌글리콜</td><td>부동액의 주요성분, 중추신경계억제 및 안구와 피부 자극</td></tr></table>				성분명	특징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디아졸리디닐우레아	방부제, 아토피성 피부염의 주 원인	메칠/프로필/부틸/에칠 파라벤	방부제, 알레르기반응과 피부발진의 원인	페녹시에탄올	살균보존제로 사용, 피부에 강한 자극	프로필렌글리콜	부동액의 주요성분, 중추신경계억제 및 안구와 피부 자극	
성분명	특징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디아졸리디닐우레아	방부제, 아토피성 피부염의 주 원인													
메칠/프로필/부틸/에칠 파라벤	방부제, 알레르기반응과 피부발진의 원인													
페녹시에탄올	살균보존제로 사용, 피부에 강한 자극													
프로필렌글리콜	부동액의 주요성분, 중추신경계억제 및 안구와 피부 자극													
		<table><tr><td>옥시벤존 (=벤조페논-3)</td><td>피부에 자극</td></tr><tr><td>소듐라우릴설페이트</td><td>안구 염증, 피부발진, 피손상, 비듬 원인</td></tr><tr><td>스테아랄코늄클로라이드</td><td>알레르기 반응, 인체에 매우 유해</td></tr><tr><td>합성색소</td><td>발암성 물질</td></tr><tr><td>프롬 알데히드</td><td>피부염증, 점막침해 및 발암성</td></tr><tr><td>트리에탄올아민</td><td>시력저하, 피부와 건조, 알레르기 반응</td></tr></table> 3. 화장품 유해성분 조사 ▶20여 개의 화장품의 성분 조사 페녹시 에탄올 : 13회 디쇼돔이디티에이 : 10회 메칠 파라벤 : 5회 트로메타인, 프로필 파라벤 : 4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미네랄오일, 암모늄라우레스설페이트 : 3회 4.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화장품 성분 ▶보존제는 세균과 미생물에 의한 화장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필수. 사용하지 않으면 화장품의 변질에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으로 엄격히 관리. III 탐구 결과 및 전망 1. 현명한 화장품 사용방법 ▶피부 타입에 따라 좋은 성분과 피해야 할 성분 구별하여 사용 2. 청소년 화장품 사용 해결방안 ▶화장에 대한 기초지식(자신에게 알맞은 화장품, 화장 후 꼼꼼한 세안법)을 교육 ▶피부트러블 생길 경우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야 함. 인스턴트식품 섭취를 피하고, 비타민 충분히 섭취,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함.	옥시벤존 (=벤조페논-3)	피부에 자극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안구 염증, 피부발진, 피손상, 비듬 원인	스테아랄코늄클로라이드	알레르기 반응, 인체에 매우 유해	합성색소	발암성 물질	프롬 알데히드	피부염증, 점막침해 및 발암성	트리에탄올아민	시력저하, 피부와 건조, 알레르기 반응
옥시벤존 (=벤조페논-3)	피부에 자극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안구 염증, 피부발진, 피손상, 비듬 원인													
스테아랄코늄클로라이드	알레르기 반응, 인체에 매우 유해													
합성색소	발암성 물질													
프롬 알데히드	피부염증, 점막침해 및 발암성													
트리에탄올아민	시력저하, 피부와 건조, 알레르기 반응													

화장품 유해성분 조사와 해결방안

백경희(31217)

I. 서론

1. 화장품 사용 실태

화장품은 인체의 겉모습을 미화시켜 용모의 결점을 커버하여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피부, 모발 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물질이다. 이러한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를 화장(化粧)이라고 한다. 화장품에는 피부 보호 크림, 로션, 파우더, 향수, 립스틱, 손발톱 매니큐어, 눈/얼굴 화장품, 퍼머, 콘택트렌즈, 머리카락 염색약, 헤어스프레이, 젤, 데오도란트, 유아용 제품, 배스 오일(bath oil), 거품 목욕 제품, 배스 솔트(bath salt, 목욕탕 분말 용제), 버터 등이 있다. 사용자의 외모를 바꾸기 위한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색조 화장품)이 있으며, 많은 제조업체는 장식용 화장품과 피부 보호 화장품을 구별하여 제조한다.

성인 여성의 경우 하루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아침 세안 후 스킨, 로션과 같은 기초제품부터 아이크림, 에센스, 수분크림, 선크림, 파운데이션, 각종 색조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총 20개가 넘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요즘은 청소년들 또한 비비크림과 틴트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고 메이크업에도 관심이 많다. 화장하는 10대 과연 괜찮을까? 10대들이 화장하고 다니는 것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남녀 청소년 1,0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숙명여대 원격대학원의 한 석사 논문에 따르면, 여학생의 86.9%, 남학생의 41.2%가 기초화장품을 사용하고, 여학생의 52.2%, 남학생의 3.9%가 메이크업 화장품을 사용했다. 기초화장품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여학생은 초등학교 때가 47.5%로 가장 높았고, 남학생은 중학교 때가 52.7%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화장이 부쩍 증가한 이유로 저렴한 가격의 화장품이 많이 출시되고 이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로드숍, 온라인쇼핑몰 등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화장품 구매가 그만큼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한창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관심을 두는 시기인 만큼 청소년들은 화장에 관심이 많다. 청소년들 사이에 기초화장품은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고, 메이크업 화장품 역시 개성과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화장하고, 또 화장을 통해 자기만족을 느끼고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외모에만 과하게 집착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다.

청소년기에 정확한 정보 없이 화장품을 남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다. 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청소년기는 피지 분비가 왕성해 성인용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기에 십상이다. 일례로, 연약한 청소년들의 피부에 성인용 파운데이션이나 블러셔, 아이라이너 등을 사용하면 자극이 강해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피지 분비가 많은 상태에서 두껍게 화장을 하면 피지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해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성 사인펜이나 쌍꺼풀 테이프, 쌍꺼풀 만들기 풀 따위와 같은 도구들로 화장을 대신하기도 해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늘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

성형전문의 홍종욱 의학박사(세민성형외과)는 "최근 화장품 사용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각종 피부 트러블과 색소침착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아무리 비싼 기능성 화장품일지라도 자신의 피부체질이나 나이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우리가 무심코 바르는 화장품에는 파라벤(paraben)을 비롯해 페녹시에탄올, 황색4호, 미네랄오일, 인공향료, 이소프로필 등 각종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서 "선천적으로 피부가 좋더라도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할 시 피부 트러블이나 색소침착, 피부탄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니 너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접하며 화장품 화학성분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였다. 화장품 성분의 발달과정을 조사하려고 한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성분 또한 조사할 예정이며, 화장품의 유해성분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할 것이다.

II. 본론

1. 화장품 성분

1) 과거 화장품 성분

화장품을 사용한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는 기원전 3500년경의 고대 이집트에서이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또한 화장품을 사용했다. 그리스 여인들은 백연이나 석회, 백묵을 얼굴에 바르고, 붉은 오디나 무화과, 으깬 장과로 붉게 칠했다. 눈은 사프란 사루나 회진으로 장식하고, 속눈썹과 눈썹은 검게 하고 달걀흰자나 암모니아 고무를 섞은 기름을 발랐다. 로마 귀족 여성들의 화장은 말하자면 벽토를 다시 펴 바르는 것과 흡사했다. 얼굴에는 백연을 칠하고, 눈의 윤곽을 그리기 위해 안티몬을 펴 바르고, 볼을 붉게 물들이려고 산화연을 발랐다. 이러한 재료들은 첫 미소에 반해 버릴 것 같은 얼굴을 만들어 주었다.

고대 여성들은 창백한 얼굴을 가지려고 마치 흑사병을 피하듯 햇빛을 피해 다녔다. 그리고 납이나 수은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든 유독한 회반죽 같은 분을 얼굴에 바르고 얼굴이 타들어 가는 듯한 따가움을 견뎌내야 했으며, 잠들 때에는 얼굴에 돼지가죽을 붙이고 자야 했다.

중세에는 교회 장로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많은 여성이 여전히 화장품을 사용했다. 중세 여성들에게도 역시 피부 빛을 창백하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이를 위해 납, 분필, 밀가루 등을 바르거나 피를 뽑기도 했다.

15세기 중반에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향수와 화장품의 비밀과 제조법에 관한 책들이 유럽 전역에 유포되기 시작했다. 1598년에는 한 작가가 '이 시대의 파운데이션'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유리 용기 안에 들어 있는 파운데이션에는 소금과 수은, 증류시킨 황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 외과 의사는 파운데이션을 심지어 부식제라 부르기도 한다. 이것을 바른 사람은 피부가 쓰러져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는 파운데이션이 피부와 접촉하면서 피부 세포를 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여자들은 스페인산 암 노새처럼 항상 치아가 검고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반쯤 찢과상을 입은 듯한 얼굴과 창백한 안색을 한 채 역겨운 입 냄새를 풍긴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여자들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지만, 늙기도 전에 얼굴이 흉측해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해를 입게 된다.”

15세기와 16세기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법을 세밀히 조사한 마리 클로트 팡은 매우 다양한 성분들을 하나씩 밝혀냈다. 모발용 화장품 성분으로는 지방이나 달인 접시꽃, 심지어는 쪼신나물을 첨가한 염소 젖까지 있었고, 치아용으로는 진주 가루, 산호 가루, 포도주를 이용한 린스 등이 있었다. 얼굴용으로는 비계를 잘게 갈아서 만든 피부 유연용 수분 크림, 으깬 잠두나 보리를 지방이나 트래거캔스 고무와 혼합하여 만든 간단한 팩, 12가지의 성분이 들어 있는 복합 팩 등이 있었다.

19세기 여성들은 약한 숙녀로 보이기를 선호했다. 이들은 자신을 연약한 꽃에 비교했고, 섬세함과 여성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창백하게 보이려 했으나, 종종 약간의 연지를 볼에 사용하였으며, 눈을 확장시켜 돋보이게 하려고 베라도나를 사용했다. 1870년대에는 사교의 에티켓이 보다 엄격해지면서 특히 메이크업이 일반적으로 환영받지 못했다. 어쨌거나, 배우들은 메이크업이 허용되었으며, 사라 베르나르나 릴리 랭트리와 같은 잘 알려진 미인들은 파우더를 바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용되는 화장품들은 여전히 화학적으로 의심스러웠다.

20세기 중반에 들어,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산업 사회의 여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16년 국산품 '분(粉)'이 나왔다. 이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이 '박가분'이었다(성이 박氏인 현재 모 그룹의 창업자가 만든 화장품 분이라 해서 박가분이라 했다). 1920~1930년대 초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하루에 5만 갑이나 팔렸으나 재래식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어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두께가 3mm 정도이고,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것을 한 조각씩 떼어 손바닥에 놓고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개어서 얼굴에 찍어 발랐는데 그 '뽕양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림1] 박가분

물이나 기름에 잘 녹았고 사람의 살갓에도 잘 퍼지고 접착이 잘되어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다. 신문에 광고도 했는데 한번 바르면 곰보도 완전히 없어지고 백옥 같은 피부를 갖는 것으로 선전하였다. 이처럼 여성들을 유혹하는 문구가 연일 신문에 광고로 게재되면서 장안의 여성들을 들쭉서 놓았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바르면 판사람처럼 이뻐진다"라는 광고에 기생들이 앞다투어 발랐다.

이렇듯 얼굴이 검은 것은 물론 기미와 잡티까지 감춰주고 향기까지 나는 박가분은 여성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납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화장을 많이 하는 기생들을 중심으로 피부가 푸르게 변해가기 시작하였다. 너무 많이 자주 발라 납중독

을 일으킨 것이었다. 박가분 속의 납 성분으로 얼굴이 썩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치명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발랐다가 납중독으로 푸르게 변해가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 두껍게 바르는 악순환으로 점차로 중독이 심해져 피부가 썩고 머리까지 납이 스며들어 정신이상을 일으킨 기생들이 속출했다. 그러다 보니 박가분 속의 납 성분 해악이 알려지고, 마침내 "살 파먹는 가루"로 소문이 나면서 한 번이라도 발랐다면 곧 얼굴이 망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소문이 나기 부풀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수만 광씩이나 팔려나가던 것이 순식간에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러한 납의 유독성 문제로 여성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1937년 자진 폐업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화장품의 유해성분에 대한 위험성은 15세기 중반부터 1916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나 발견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2) 오늘날 화장품의 유해성분

우리가 무심코 바르는 화장품에는 파라벤(paraben)을 비롯해 페녹시에탄올, 황색4호, 미네랄오일, 인공향료, 이소프로필 등 각종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존제로 사용되는 '파라벤'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호르몬과 내분비계 교란, 유방암 발생 등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 파라벤은 쉽게 말해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부제다. 기본적으로 화장품 유통과정이나 사용과정에서 증식할 수 있는 세균과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보존제를 쓰지 않으면 화장품의 사용기간은 현저히 짧아진다. 문제는 파라벤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영국 리딩 대학 디버 박사팀은 논문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의 체내 세포 조직 내부를 관찰한 결과 파라벤 성분을 검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파라벤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체질의 경우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진물, 물집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파라벤은 원료 가격이 저렴하며 보존제의 효과가 좋으므로 제조사 쪽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성분인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중저가, 고가 화장품 할 것 없이 뒷면을 살펴보면 파라벤류가 포함된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라벤은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침투해 있는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2년 한 해 동안 3~18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파라벤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의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개인의 체중 및 체질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사용하는 제품의 수, 그것에 포함된 파라벤의 양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파라벤의 유해성에 대해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영유아, 임산부의 경우 성분표 확인을 통해 파라벤 성분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파라벤류라 할지라도 세부 종류에 따라 유해성이 다르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 Working Group)에서 발표하는 '화장품 성분 위험도'에 의하면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보다는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의 유해성이 낮다고 알려졌다.

잘 알려진 화장품 유해성분에는 이런것들이 있다.

[표1]화장품 유해성분

성분명	특징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디아졸리디닐우레아	방부제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주요 원인 상은 10°C에서도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방 출
메칠/프로필/부틸/에칠 파라벤	화장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부제. 내분비계 교란물질 알레르기반응과 피부발진의 원인
페녹시에탄올	살균 보존제로 쓰이며 피부에 강한 자극이 된 다.
프로필렌글리콜	부동액의 주요성분 ,석유에서 추출하여 합성, 중 추신경계 억제, 안구와 피부에 자극
옥시 벤존(=벤조페논-3)	자외선차단제에 사용되며 피부에 자극이 된다.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세정제, 거품만드는 요소인데 샴푸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눈의 염증과 피부발진, 두피손상, 비 듬 등의 원인
스테아랄코늄클로라이드	헤어컨디셔너와 크림에 사용되며 알레르기 반 응, 인체에 매우 유해
합성색조	황색0호, 적색0호, 청색0호 등으로 표시. 발암성 물질
포름 알데히드	피부에 염증, 점막 침해 발암성 물질
트리에탄올아민	시력저하, 피부와 두피의 건조 등 알레르기 반 응의 원인

3) 화장품 유해성분 조사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의 성분과 유해성분을 분류하여 표로 나타내 보았다.

[표2]내가 사용하는 화장품

화장품	성분	유해성분
이니스프리 그린티 퓨어 스킨	녹차추출물(93.1%), 에탄올, 하이드로제 네이티드폴리이소부텐, 굴껍질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난추출물, 동백나무 잎추출물, 센타우리추출물, 화이트윌로 우껍질추출물, 파이지/피피지-17/6코플 리머, 디프로필렌글라이콜, 메칠글루세 스-20, 베헤닐알코올, 암모늄아크릴로일	에탄올 메칠글루세스-20 트로메타민 디소듐이디티에이 페녹시에탄올 향료

	디메칠타우레이트/보이피코폴리머, 카보머, 트로메타민, 디소듐이디티에이, 페녹시에탄올, 향료	
이니스프리 그린티 퓨어 로션 	유기농 녹차수 93.5 % *녹차추출물, 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에칠헥사노에이트, 굴껍질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난추출물, 동백나무잎추출물, 마시멜로뿌리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C6-14올레핀),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 카보머, 트로메타민, 디소듐이디티에이, 페녹시에탄올,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향료	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 트로메타민 디소듐이디티에이 페녹시에탄올 향료
이니스프리 에코 세이프티 노 세범 선블록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정제수,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메칠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피이지-10디메치콘, 이소데실네오펜타노에이트, 실리카, 마이카, 글리세린, 디스테아디모늄헥토라이트, 디프로필렌글라이콜, 녹차추출물, 위치하젤잎추출물, 해바라기씨오일, 효모발효용해여과물, 굴껍질추출물, 난추출물, 동백나무잎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사이클로메치콘, 마그네슘셀페이트,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 알루미늄스테아레이트, 비닐디메치콘/메치콘실세스퀴옥산크로스폴리머, 폴리메칠메타크릴레이트, 메치콘,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스테아로일니올린, 카프릴릴글라이콜, 소르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 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 디메치콘/비닐디메치콘크로스폴리머, 폴리글리세릴-6폴리리시놀리에이트, 트리에톡시카프릴릴실란, 디메치콘, 셀룰로오스검, 향료, 페녹시에탄올, 황색산화철, 적색산화철, 흑색산화철	피이지-10디메치콘 향료 페녹시에탄올
미샤 M 퍼펙트 커버 비비 크림 21호	정제수, 사이클로메치콘,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징크옥사이드, 프로필렌	피이지-10디메치콘 세틸피이지/피피지



글라이콜, 티타늄디옥사이드,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피이지-10디메치콘, 세틸피이지/피피지-10/1디메치콘, 알부틴, 미네랄오일, 글리세린, 폴리에틸렌, 탈크, 페닐트리메치콘, 비즈왁스, 소듐클로라이드, 디메치콘, 로즈힙열매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쿠알란,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마카다미아씨오일, 디소듐이디티에이, 아테노신, 캐비어추출물, 갈조추출물, 로즈마리잎추출물, 캐모마일꽃추출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너도밤나무씨추출물, 세라마이드3, 황색산화철, 적색산화철, 흑색산화철, 프로필파라벤, 메칠파라벤, 향료,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벤질살리실레이트,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알파-이소메칠이오논, 헥실신남알, 리날룰, 시트로넬올

-10/1디메치콘
미네랄오일
디소듐이디티에이
프로필파라벤
메칠파라벤
향료

토니모리 수분 광채 윤기팩트 02
스킨베이지



마이카, 텔크, 합성플루오르폴로고파이트, 티타늄디옥사이드, 실리카, 보론나이트라이드, 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소스테아레이트, 에칠헥실팔미테이트, 카프릴릴메치콘, 글리세릴시트레이트/락테이트/리놀리에이트,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마그네슘미리스테이트, 칼슘알루미늄보로실리케이트, 트리플루오로메칠C1-4알킬디메치콘,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엘발이스꽃추출물, 연어알추출물, 해수, 미네랄워터, 비트뿌리추출물, 온천수, 하이드롤라이즈드옥수수전분, 벚꽃추출물, 쌀발효여과물, 징크옥사이드, 트리에톡시카프릴릴실란, 메치콘, C9-15플루오로알코올포스페이트, 디소듐스테아로일글루타메이트, 레시틴, 디메치콘, 아크릴레이트/트리메실아크릴레이트/트리에톡시실릴프로필메타크릴레이트/디메치콘메타크릴레이트코폴리머, 알루미늄미리스테이트, 소듐테하이드로아세테이트, 디메치콘/메치콘코폴리머,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 디메치콘/비닐디메치콘크로스폴리머, 트리에틸실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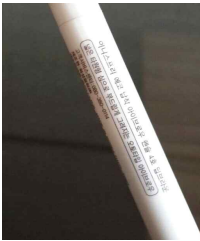
C9-15플루오로알코올포스페이트
트리메칠실록시실리케이트
향료
페녹시에탄올

	실리카이트,정제수,베타인,진주가루,카르노신,트레할로스,부틸렌글라이콜,글라이신,라이신,류신,메치오닌,발린,산소,시스테인,아스파틱애씨드,알라닌,알지닌,이소류신,타이로신,페닐알라닌,프로테아제,프롤린,히스티딘,향료,페녹시에탄올,적색산화철		
토니모리 파티러버 젤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트리메칠실록시실리카이트, 사이클로펜타실록산, 흑색산화철 (CI 77499), 이소도데칸, 사이클로헥사실록산, 세레신, 적색산화철 (CI 77491), 황색산화철 (CI 77492), 탈크, 카프릴릴메치콘, 티타늄디옥사이드 (CI 77891), 실리카실릴레이트, 트리에톡시카프릴릴실란, 디스테아디모늄헥토라이트, 프로필렌카보네이트, 마카다미아씨오일, 포도씨오일, 비에이치티, 부틸파라벤	트리메칠실록시실리카이트 비에이치티 부틸파라벤
토니모리 트리플 돔 아이섀도우 02까페모카		마이카 (CI 77019),티타늄디옥사이드 (CI 77891),탈크,적색산화철 (CI 77491),흑색산화철 (CI 77499),옥틸도데실스테아로일스테아레이트,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보론나이트라이드,디펜타에리스리틸헥사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헥사스테아레이트/헥사로지네이트,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이소스테아레이트,망가니즈바이올렛 (CI 77742),합성플루오르폴로고파이트,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옥수수전분,마그네슘알루미늄실리카이트,트리에톡시카프릴릴실란,소듐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디메칠타우레이트코폴리머,카민 (CI 75470),폴리소르베이트80,이소헥사데칸,틴옥사이드 (CI 77861),잔탄검,디메치콘,페녹시에탄올,클로페네신,메칠파라벤,부틸파라벤,에칠파라벤,프로필파라벤	폴리소르베이트80 페녹시에탄올 클로페네신 메칠파라벤 부틸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05호 슈가브라운		마이카 (CI 77019),탈크,티타늄디옥사이드 (CI 77891),나일론-12,네오펜틸글라이콜디에칠헥사노에이트,이소스테아릴네오펜타노에이트,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이소스테아레이트,징크스테아레이트,실리카,마그네슘미리스테이트,옥틸도데실스테아	미네랄오일 메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로일스테아레이트, 적색산화철 (CI 77491), 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 보론나이트라이드, 미네랄오일, 폴리부텐, 디메치콘, 디메치콘올스테아레이트, 트리에톡시카프릴릴실란, 토크페릴아세테이트, 메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더 페이스 샴 페이스잇 셀라이트닝 하이라이터 밤 	정제수, 사이클로펜타실록산, 마이카(CI 77019), 부틸렌글라이콜, 사이클로헥사실록산, 티타늄디옥사이드(CI77891), 디카프릴릴카보네이트, 세틸피이지/피피지-10/1디메치콘, 글리세린, 소듐클로라이드, 디스테아디모늄헥토라이트, 루비가루, 자수정가루, 진주가루, 토르말린, 소르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 사이클로메치콘, 메칠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디메치콘/비닐디메치콘크로스폴리머, 페닐트리메치콘, 디메치콘크로스폴리머, 트리에톡시카프릴릴실란, 아크릴레이트/디메치콘코폴리머,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 디소듐이디티에이, 메칠파라벤, 클로페네신, 프로필파라벤, 향료, 울트라마린(CI77007), 적색산화철(CI77491), 황색산화철(CI77492)	세틸피이지/피피지-10/1디메치콘 디소듐이디티에이 메칠파라벤 향료
씨라클 레드 스팟 크림 	정제수, 징크옥사이드, 글리세린, 페녹시에탄올,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이소부텐, 세테아릴알코올, 1,2-헥산디올, 나이아신아마이드, 디메치콘, 사이클로메치콘,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폴리소르베이트60,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 소르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 소듐스테아로일글루타메이트, 디소듐이디티에이, 잔탄검, 카프릴릴글라이콜,	페녹시에탄올 폴리소르베이트60 디소듐이디티에이 테트라소듐파이로포스페이트

	테트라소듐파이로포스페이트, 티트리잎 오일, 판테놀, 카프릴하이드록사믹애씨드, 부틸렌글라이콜, 병풀추출물, 바실러스/병풀추출물발효여과물, 락토바실러스/황금추출물발효여과물, 아스퍼질러스/효모/쌀발효여과물, 회화나무꽃추출물, 클로로필린-카퍼콤플렉스, 레시틴, 실리카, 황	
에뛰드하우스 소녀 틴트&립밤 PK001 딸기 키스	틴트 : 에탄올 정제수 부틸렌글라이콜 석류나무추출물 트레할로스 글리세린 메칠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프로필파라벤 프로필렌글라이콜 청색1호 글리세릴폴리메타크릴레이트 구기자추출물 라즈베리추출물 블루베리추출물 펜틸렌글라이콜 적색227호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커피추출물 프로판디올 무환자추출물 덩굴월굴열매추출물 딸기추출물 진들딸기씨추출물 립밤: 티타늄디옥사이드 향료 비즈왁스 카나우바왁스 미네랄오일 쉐어버터 스테아릴글리세리네이트 토크페릴아세테이트 아르간트리커넬오일 해바라기씨오일 폴리글리세릴-2트리아이소스테아레이트 올리브오일 카카오씨드버터 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 파라핀 적색104호의 (1)	틴트: 메칠파라벤 페녹시에탄올 프로필파라벤 청색1호 적색227호 립밤: 향료 미네랄오일 적색104호
더페이스샵 페이스잇 워터프루프 EX 마스카라 02호 데일리 프루프	정제수,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카나우바왁스, 스테아릭애씨드, 글리세릴아비에테이트, 아라비아고무, 폴리글리세릴-3비즈왁스, 트리에탄올아민, 아크릴레이트/옥틸아크릴아마이드코폴리머, 부틸렌글라이콜, 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에탄올, 파라핀, 하이드로제네이티드트리아이소부텐, 호호바에스터, 칸테릴라왁스추출물, 토크페릴아세테이트,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C12-20알킬글루코사이드, C14-22알코올, 트로메타인, 이소도데칸, 디메치콘, 하이드록시에칠셀룰로오스, 에칠헥실글리세린, 판테놀, 나이아산아마이드, 라놀레익	트리에탄올아민 트로메타인 페녹시에탄올



	애씨드,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콩스테롤, 포스포리피드, 라피노오스, 세리마이드3, 콜레스테롤, 팔미토일펜타덱타이드-4, 폴릭애씨드, 페녹시에탄올, 흑색산화철	
이니스프리 에코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4호 딥브라운 	흑색산화철, 하이드로제네이티드콩오일, 하이드로제네이티드코코-글리세라이드, 하이드로제네이티드식물성오일, 황색산화철, 마이카, 적색산화철, 징크스테아레이트, 스테아릭애씨드, 카나우바왁스, 폴리글리세릴-2트라이소스테아레이트, 토코페롤, 카프릴릴글라이콜, 페녹시에탄올, 아스코빌팔미테이트, 헥실렌글라이콜	페녹시에탄올
뉴트로지나 딥글린 포밍 클렌저 	정제수, 스테아릭애씨드, 글리세린, 피이지-8, 프로필렌글라이콜, 미리스틱애씨드,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라우릭애씨드, 비즈왁스,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피이지-100, 스테아레이트, 향료	피이지-8 향료
이니스프리 애플쥬이시 립앤아이리무버	정제수, 사이클로펜타실록산, 헥실렌글라이콜, 사과추출물, 위치하젤잎추출물, 라벤더꽃수, 녹차추출물, 굴껍질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난추출물, 동백나무잎추출물, 1,2-헥산디올, 소듐클로라이드, 카프릴릭/카프릴글루코사이드, 라우릴메칠글루세스-10하이드록시프로필 디모늄클로라이드, 디포타슘포스페이트, 에칠헥실글리세린, 디소듐이디티에이, 포타슘포스페이트, 벤조페논-5, 부틸렌	디소듐이디티에이 청색1호 황색4호 향료

	글라이콜, 청색1호, 황색4호, 향료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 	정제수, 암모늄라우레스설페이트, 암모 늄라우릴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 인, 소르비톨, 바나나수, 사과수, 마시멜 로뿌리추출물, 알로에베라잎추출물, 구 아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세틸알코올, 소듐클로라이드, 스타이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시트릭애씨드, 코카마이드엠이에이, 코코-글루코사이 드, 트리하이드록시스테아린, 쌀겨수, 메 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클로로이소치아 졸리논, 소듐벤조에이트, 페녹시에탄올, 향료	암모늄라우레스설페 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클로로이소치아 졸리논 페녹시에탄올 향료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딥 케어 헤어팩 	정제수, 디메치콘, 세테아릴알코올, 사이 클로펜타실록산, 베헨트리모늄클로라이 드, 프로필렌글라이콜, 인삼추출물, 서양 측백나무잎추출물, 상백피추출물, 구절 초추출물, 구기자추출물, 석창포추출물, 창이자추출물, 감초추출물, 박하추출물, 디스테아릴디모늄클로라이드, 스테아라 미도프로필디메칠아민, 디메치콘올, 하 이드록시에칠셀룰로오스, 씨트릭애씨드, 향료,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아르간트리커넬오일, 로즈힙오일, 달맞이꽃오일	베헨트리모늄클로라 이드 디스테아릴디모늄클 로라이드 스테아라미도프로필 디메칠아민 향료 메칠클로로이소치아 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에뛰드하우스 실크 스카프 모이스트 헤어 미스트	정제수,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에탄올, 디 카프릴릴카보네이트, 프로필렌글라이콜, 아르간트리커넬오일, 동백오일, 해바라 기씨오일, 마카다미아씨오일, 디소듐이 디티에이,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 스테 아트리, 모늄클로라이드, 아모디메치콘, 이소프로필알코올, 트리테세스-12, 피이	에탄올 디소듐이디티에이 세트리모늄클로라이 드 스테아트리 모늄클로라이드 페녹시에탄올

	지-14M, 피이지-20글리세릴트리이스스테아레이트, 피이지-32, 피이지-6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 카프릴릴글라이콜, 페녹시에탄올, 향료	향료
이니스프리 상쾌한 해안길 바디로션 	정제수, 글리세린, 에칠헥실팔미테이트,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디메치콘, 세테아릴알코올, 마카다미아씨오일, 쉐어버터, 해수, 꿀껍질추출물, 난추출물, 녹차추출물, 동백나무잎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개청각추출물, 납작과래추출물, 자이언트켄프추출물, 감태추출물, 우뭇가사리추출물, 다시마추출물,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에스이,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스테아릭에씨드,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피이지-100스테아레이트,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 카프릴릴글라이콜, 디메치콘올, 트로메타민, 마그네슘알루미늄실리케이트, 트레할로스, 부틸렌글라이콜, 카보머, 잔탄검, 디소듐이디티에이, 페녹시에탄올, 향료	트로메타민 디소듐이디티에이 페녹시에탄올 향료
미장센 펄 샤이닝 모이스처 샴푸 	정제수, 암모늄라우레스설페이트,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디메치콘, 하이드롤라이즈드콘카올린프로테인, 징크글루코네이트, 카퍼글루코네이트, 칼슘글루코네이트, 마그네슘아스파테이트, 구아하이드록시프로필, 트리모늄클로라이드, 디소듐이디티에이, 라우레스-3, 라우레스-23, 마이카, 부틸렌글라이콜, 사이클로메치콘, 세틸알코올, 소듐살리실레이트, 소듐클로라이드, 시트릭에씨드, 잔탄검, 적색산화철, 코카마이드엠이에이, 트리하이드록시스테아린, 티타늄디옥사이드, 소듐벤조에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페녹시에탄올, 황색4호, 동색205호, 향료, 진주단백질20ppm	암모늄라우레스설페이트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트리모늄클로라이드 디소듐이디티에이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페녹시에탄올 황색4호 동색205호 향료
팬틴 극손상 케어 인텐시브	정제수, 비스-아미노프로필디메치콘, 스	향료

트리트먼트	테아릴알코올, 베헨트리모늄메토설페이트, 세틸알코올, 향료, 벤질알코올, 디소듐이디티에이, 판테놀, 판테닐에칠에텔, 실크추출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황색4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적색227호, 청색1호	디소듐이디티에이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황색4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적색227호 청색1호
-------	--	--



위 표에서 살펴본 결과 20개의 화장품에는 모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있었다. 유해성분 중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은 향료로 15번 포함되었다. 그 뒤를 이어 페녹시 에탄올이 13번, 디소듐이디티에이가 10번, 메칠 파라벤이 5번 포함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화장품 성분 중 눈에 띄는 성분은 메칠클로로이 소치아 졸리논이 있다. 최근 EU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물질의 사용제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번 사용된 페녹시에탄올은 파라벤이 위험한 방부 성분으로 알려져 대신사용하고 있는 방부 물질이다. 화학성, 향료, 방부제 살균 보존제로 사용되며, 피부, 점막을 자극하여 체내에 흡수된다. 페녹시에탄올은 피부 자극성이 있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페녹시에탄올을 이어 10개의 화장품에서 사용된 성분은 디소듐 이디티에이다. 디소듐 이디티에이는 금속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첨가제이다.

4)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유해성분

서울대 보라매병원 피부과 조소연 교수는 일부 화학 성분들은化妆품을 구성하는 필수 원료이며, 여러 임상을 통해 장기간 안전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기초 화장품의 9대 원료 중의 하나인 계면활성제는 액체의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퍼지기 쉽게 하거나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을 섞이게 도와주는 유기화합물이다. 화장품의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으로 비누, 바디클렌저, 샴푸와 같은 세정제뿐 아니라 스킨, 로션 등 보습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물로 씻어내면 씻겨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세정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면활성제와 함께 기초 화장품의 9대 원료에 포함되는 보존제는 화장품의 유통 및 사용 과정에서 세균과 미생물에 의한 화장품의 변질을 막기 위한 필수 성분이다. 보존제를 쓰지 않을 경우 화장품의 사용 기간이 짧아지게 되며, 변질에 인한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조소연 교수는 “일부 화장품의 경우 보존제를 넣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품을 변질 없이 보존하기 위해 보존제 역할을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파라벤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전성과 보존력이 검증된 가장 믿을 수 있는 보존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사용 한도 성분으로 인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근 식약처의 조사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파라벤 노출 수준은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0.4% 이하의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화장품의 파라벤 함유에 대한 안전성 관련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III. 결론

1. 현명한 화장품 사용방법

한국 여성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심사가 있다면 피부 건강이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정보가 쏟아지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각종 경험담이 교류되는 등 건강한 피부를 위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피부 건강 이슈 중에서도 가장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부분은 단연 화장품 성분. 실제化妆품을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 60%는 화장품 구매 시 이상 반응과 성분의 안전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라벨을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가 등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특정 화장품 성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양산하고, 막연한 공포감이나 거부감을 조성하는 등의 폐해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과 노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화장품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도 도입했다.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란 화장품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필수적으로 전체 성분으로 표기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대 보라매병원 피부과 조소연 교수는 “개인적인 체질이나 특성은 모두 다르므로化妆품을 제조할 시에 이를 모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化妆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화장품 성분 분석 어플리케이션은 성분을 조회할 경우에는 유용하나 유해성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분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성분을 해석할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화장품에 화학성분 첨가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화장품 사용자들은化妆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피부 타입을 확인 해야 된다. 피부 타입에 따라 좋은 성분과 피해야 할 성분이 나뉘기 때문이다. 피지 분비가 많아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지성 피부는 알코올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화장품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알코올이 피부를 자극해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분감이 많거나 모공을 막는 식물성 오일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다. 에탄올·미네랄 오일·시어 버터 등이 대표적이다.

여드름이 있는 사람은 양털에서 추출한 라놀린 성분 등을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라놀린은 정제를 아무리 잘해도 미세하게 양털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성분이 모공을 막으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아세틸화 라놀린 알코올, 이소프로필 라놀레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바셀린, 아몬드 오일 등도 피하는 게 좋다. 피지를 흡수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살리실산(BHA), 실리콘 폴리머(디메치콘·사이클로펜타실록산), 티트리 오일, 시위드(해초), 사포닌(인삼) 등의 성분은 권한다.

반대로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식물성 오일 성분이 들어간化妆품을 고르는 게 좋다. 올리브·카놀라·해바라기·포도 씨·호호바 성분이 대표적이다. 이들 성분은 피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수

분이 증발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임신 중이라면 화장품 성분을 더욱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비타민A와 레티놀의 함량이 높은 화장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비타민A의 한 종류인 레티놀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성분이다. 비타민A는 임신 중 섭취하면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화장품에는 대부분 아주 소량이 들어 있지만, 주의하는 게 좋다.

화장품을 고를 때 색깔이나 향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수분감이 느껴지는 파란색 수분크림이나 생기 있는 피부를 연상시키는 핑크색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향료와 색소는 화장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향료와 색소는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인공 조미료나 합성첨가물과 비슷하다. 기초 화장품을 고를 때는 향과 색깔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특히 아밀신남알·벤질알코올·시트랄·유제놀·쿠마린 등의 향료 성분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2. 청소년 화장품 사용 해결방안

청소년기에 외모에만 과하게 집착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화장하지 말라고 막기보다는 화장에 대한 기초 지식을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값싸고 질 낮은 제품이 아닌 자신에게 알맞은 제품을 골라 올바르게 화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는 색조 화장품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엇보다 화장 후에는 세안을 꼼꼼히 해 화장품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화장품에 의존하기보다 꼼꼼히 클렌징을 하거나 인스턴트식품을 피하고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숙면을 취하는 등 근본적인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베아트리스 풍타넬, 2004, 치장의 역사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홈페이지>

위키백과 (화장품)

<http://ko.wikipedia.org/wiki/%ED%99%94%EC%9E%A5%ED%92%88#.EC.97.AD.EC.82.AC>

스포츠 조선(홍종욱 박사 "잘못된 화장품 사용이 피부노화 부추긴다")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405080100066420004271&ServiceDate=20140508>

굿모닝충청 (엄마 화장품 몰래 발랐다면...)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68>

cos'in 뉴스 (한국 최초의 제1호 화장품 '박가분')

http://www.cosinkorea.com/index.html?cname=news&sname=news_01_07_03&dcode=522

etnews 뉴스(파라벤, 화장품 변질만 막으면 그만? 영유아 주의해야...)

http://ebuzz.etnews.com/news/news1/2947247_5007.html

네이버 블로그 '美에 빠지다' (피부에 안 좋은 화장품 성분/ 나쁜 화장품 성분)

<http://skineye10.blog.me/20202851168>

네이버 블로그 '빙그레' (피해야할 화장품성분과 좋은 화장품성분)

<http://blog.naver.com/bingsmile?Redirect=Log&logNo=40168574855>

네이버 블로그 '세계최고의 화장품 만들기' (화장품사용시 10가지 주의 성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renius&logNo=80028918063&viewDate=¤tPage=1&listtype=0>

화학 성분 검색

http://www.eurolife24.com/shop/detailinfo_select.php

화학 성분 사진

<http://www.isskin.com/m/community/dic.php?keyword=&hno=&eno>

뷰티 한국 뉴스 (EU, 독성 방부제 성분 규제 강화 나선다)

<http://beaut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77>

news1 뉴스 ([장치선의 2030건강남녀] 화장품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바로 이것)

<http://news1.kr/articles/1660992>